

서울 증언팀 세미나 보고

팀장: 양현아

서울에 근거를 둔 증언팀의 증언활동을 증언집으로 준비하기 세미나팀이 2000년 1월 11일 부터 시작하여 매주 모임을 가져 7차례의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이 세미나 팀은 증언팀 멤버 중 증언집 작업에 참여할 뜻을 가진 8명의 멤버로 구성되었습니다. 그간의 세미나의 내용은 구술사, 집합 기억 등 방법론 및 3회 조사를 마친 녹취록을 함께 읽는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논의된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증언의 재현(representation): 위안부 할머니로서의 경험과 비위안부로서의 경험(예컨대 위안부 시절의 경험과 한국전쟁의 경험, 현재의 상태)을 어떻게 안배할 것인가.

-- '아직도 끝나지 않은 위안부 문제'라는 차원에서 실어야 한다. 현재의 삶에 그대로 녹아있는 위안부 문제의 현재성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한다. 이를 통해 식민지 유산의 더 깊은 차원을 폭로할 수 있을 것이다.

* 반드시 연대기적으로 증언을 정리해야 하나, 사건사적으로 정리할까.

-- 할머니가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을 보자. 현재 상황에서 출발할 수도 있다 (영화 박하사탕의 발생학적 자세, 더 생각하게 한다). 이 측면은 이후 더 논의하자.

-- 할머니 증언을 가장 잘 재현하고 집약하는 내용, 스타일로 증언 편집한다.

-- 할머니 말투, 사투리, 리듬 살린다.

* 면접자의 위치: 증언이 썩어지는 모든 과정 - 면접, 녹취 정리, 편집 - 에 면접자의 위치가 들어있다. 그것을 감추고 최대한 '객관적인' 목소리를 낼 것인가. 아니면 '내가 편집하고 인터뷰하고 정리하고 참여했다'는 상황을 독자가 느끼게끔 하는 것이 좋을까.

-- 증언이 증언과 면접자간의 상호작용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또한 면접자가 보고느낀 현재의 상태도 하나의 증언이 아니겠는가. 그것을 참여기라는 형식으로 써서 할머니 증언의 앞이나 뒤에 넣자. 참여기는 증언생산과정을 드러내고 독자가 증언을 읽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이미 증언을 받을 때 쓴 참여기를 바탕으로 하여 증언에 들어갈 참여기의 내용과 형식은 더 논의를 하자.

㉠ -- 시간, 장소, 정황 등 객관적 상황은 최대한 조사하여 정밀을 기하자.

* 질문과 대답의 형식 문제: 질문 대답이 같이 들어올 경우, 독자의 읽기(가독성)에 방해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어떤 할머니의 경우는 질문이 없이 이야기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면접자가 많은 이야기를 재구성해야 하는 데 어떻게 할 것인가.

-- 질문과 대답을 같이 넣을지 여부는 계속 논의하기로 함.

* 3-4월 계획 -- 아직 완료되지 않은 녹취록 작성 및 토론 후 편집 작업에 착수한다. 자기가 증언을 들은 할머니는 각자 편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편집 후 팀에서 돌려보며 평가한다.

한글 . 영문 .